



“내가 지역 발전 이끌 책임자” 총선에서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왼쪽),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8일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오 지사 “행정체제 개편 사무 배분 분권·분산·지방자치법상 체계 고려”

### 사무 배분 추진 원칙 제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과 관련해 ▷분권 ▷분산 ▷지방자치법상 체계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8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회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사무배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오 지사는 분권과 관련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00여 건의 권한 이양, 5300여 건의 특례 이양이 이뤄졌다”며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오 지사에게 가져왔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어디에 살든 도민으로서 같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이 고루 존재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등에 대해 언급했다.

오 지사는 “현재 지방자치법 상 광역과 기초 사무가 구분돼 있어 법적 체계를 먼저 면밀하게 살핀 뒤 업무의 순서를 재위치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법무, 자치행정, 예산,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무배분 1차 안을 마련한 뒤 종합토론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2024 제주식품대전 및 한·중·일 맥주축제 홍보 활성화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다각화 추진 등 현안 논의도 이뤄졌다.

제주도는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및 방문 발급에 따른 국민불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 대상 요구사무 32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 오 지사는 근거 규정은 있으나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해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도영기자

## 결전의 날 하루 앞으로... “한 표가 소중”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서며 ‘결전의 날’을 예고했다. 사실상 9일 자정을 기점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마감되며, 선택은 유권자의 표심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제주지역은 3개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서귀포시 순) 모두 거대 여야 후보 간 맞대결로 압축된다. 최근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후보가 각각의 상대인 국민의힘 고광철·김승욱·고기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에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3석 모두를 가져가며 지난 20년 간의 독주체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한라일보·뉴제주일보·헤드라인제주·KCTV제주

민주당·국민의힘, 막판 상대 후보 비방전 총공세 선거 이후에도 수사·법적 공방 비화 가능성도 인사·거리유세로 막판 표심 잡기에 하루가 짧아

방송이 공동으로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여론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다.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로 이뤄졌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8일 각 후보 진영은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막판 주요 변수로 판단하고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상대 후보를 겨냥한 의혹 제기를 통해 총공세를 펼치며 막판 비방전과 수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했다. >> 관련기사 2·3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상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를 대상으로 재산신고 누락과 ‘경철정장’ 문구

등 선거 공보물에 경력사항 등에 대한 잘못된 표기된 내용 등을 집중 거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제주시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유리성 주식 취득, 골프장 명예회원권 의혹 제기 등에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시절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로 문대림 후보와 고광철 후보가 맞고발을 예고하며 고도의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총선 이후에도 당락을 떠나 사법기관의 수사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시을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와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 아침인사를 비롯해 유세차량을 타고 동지역과 읍면지역 곳곳을 돌며 유세를 벌였다. 저녁 시간대에는 각각 퇴근길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시청, 삼화지구,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거리 등지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막판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 1516명(제주시갑 501명, 응답률 16.4%, 표본오차 ±4.4, 제주시을 510명, 응답률 14.7%, 표본오차 ±4.3, 서귀포시 505명, 응답률 18.1%, 표본오차 ±4.4)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기본 현황도 파악 못하는 ‘콘크리트 맨홀 뚜껑’...4면

## 25일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 인사 청문회

강기탁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8일 제주도지사로부터 강기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돼 제주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의회 의장은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인청특위를 구성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을 받는다. 상임위원 추천 6명과 의장 추천 1명 등 7명으로 청문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인사청문특위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26일 열리는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게 된다.

강 후보자는 제주시 한림읍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주시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제주도의회 법률고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태운기자 ity9456@ihalla.com

HALLIMPARK

## 제27회 한림공원 튜림축제

# Hello Spring.

### 3/29(금) - 4/14(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300 (63011) Tel. 064)796-0001 Fax. 064)796-0006  
www.hallimpark.com www.instagram.com/jeju\_hallimpark www.facebook.com/jejuhallimpark 한림공원

